

# 해외 주요 국가별 시멘트산업 동향



중국

## 1~2월 중국 시멘트 생산 증가, 가격은 하락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가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은 237,29Mt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의 4.8%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 Anhui Conch사, 가격 하락으로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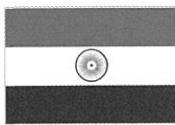
중국 Anhui Conch사가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평균 판매가격이 1년 전 가격인 톤당 308위안에서 톤당 245위안으로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6.41%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Conch그룹은 154Mt의 클링커와 149Mt의 시멘트를 생산해 전년대비 각각 13.81%와 17.17% 증가했다.

한편 Anhui Conch사는 지난해 9개의 클링커 생산라인과 19개의 시멘트 분쇄 장치 건립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 CRC, 시멘트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수익 감소

China Resources Cement(CRC)사의 지난해 수익이 2억9,900만달러로 전년대비 4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이 전년대비 9.1% 증가한 가운데 시멘트와 클링



인도

커 판매량도 각각 26.5%와 36%로 증가하였으나, 시멘트 가격과 클링커 가격 하락으로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



#### ACC사, 생산설비 확장 등 대규모 투자

인도의 주요 시멘트업체인 ACC사가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 자물(Jamul) 소재의 기존 생산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2013년에 약 330인도루피(6억39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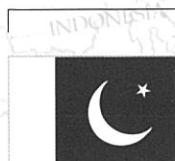
이와 관련 ACC의 NS Sekhsaria 회장은 77차 연례 주주총회에서 자물(Jamul) 생산라인을 확장하여 생산량을 5Mta 가량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이번 확장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ACC의 총 생산량은 35Mta로 늘게 된다.

ACC사는 또한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주 가갈(Gagal)시에 폐기물 열 회수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1단계 건설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7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UltraTech사 2월 판매량 감소

인도 내수시장의 수요 하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Ultratech Cement사의 2013년 2월 판매량이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ditya Birla 그룹 계열사인 UltraTech사는 올해 2월 시멘트 판매량이 전년동월의 3.51Mt에 비해 하락한 3.31Mt을 기록하였고, 생산량 또한 지난 2012년 2월의 3.46Mt에서 소폭 하락한 3.32Mt을 판매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겨울에 북부 지방에 내린 비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파키스탄

#### 내수증가로 파키스탄 시멘트 판매 약진

파키스탄 시멘트 생산자 협회(All Pakistan Ce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APCMA)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파키스탄의 시멘트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수는 15.7Mt으로 6% 증가한 반면, 수출은 5.4Mt으로 4.3% 감소하였다. 내수가 증가한 것은 파키스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개발 프로그램(Public Sector Development Programme; PSDP)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상조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데다 겨울철 수학으로 인한 농부들의 자금 유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멘트 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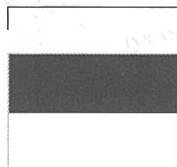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 Lafarge Malayan, 생산 규모 증대 검토

Lafarge Malayan Cement는 자국 내 경쟁사들이 생산량을 증대시킴에 따라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생산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말레이시아의 유력 시멘트 공급사로 주요 경쟁회사로는 YTL Cement와 Cement Industries of Malaysia(CIMA)사가 있는데 현재 두 회사 모두 생산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시장에 새로 진출한 Hume Industries 역시 1.5Mta급 생산 공장을 새롭게 건립하면서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Lafarge Malaysia 관계자는 “생산 규모 증대는 이사회를 통해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장의 선두 주자라는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생산 용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 부동산 및 인프라 건설 호재로 시멘트 판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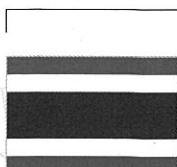
부동산 개발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호조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의 2013년 1월 시멘트 판매량이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시멘트협회(Indonesian Cement Association; ASI)에 따르면 2013년 1월 시멘트 판매량은 4.65Mt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자바(Java)섬이 19.4% 증가한 2.6Mt, 누사 텅가라(Nusa Tenggara) 동섬 및 서섬의 판매량은 35% 증가한 270,774t이었으며, 파푸아(Papua)와 말루쿠(Maluku)섬의 판매량은 15.4% 증가한 109,321t으로 나타났다.

### PT Semen, 1분기 시멘트 판매 두 자릿수 증가

인도네시아 최대의 시멘트 생산 업체인 PT Semen Indonesia의 2013년 1분기 판매량이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시멘트 협회(Indonesian Cement Association; ASI)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2년 1분기에는 4.94Mt이었던 판매량이 2013년 1분기에는 20.4% 증가한 5.95Mt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매 증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판매가 모두 늘어나면서 이 회사의 2013년 1분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5%에서 4.3%p 증가한 43.8%로 늘어났다.



태국

### TPI사, 신규 생산 라인 확충

태국에 위치한 시멘트업체인 TPI Polene이 Saraburi 공장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건립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콕 포스트(Bangkok Post)지는 이 회사가 2016년까지 100억

바트를 들여 그 중 절반을 클링커 생산 라인에, 나머지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생산라인은 Saraburi 공장의 생산용량을 33% 정도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네 번째 생산라인 건설을 연기한 바 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시멘트 수요가 꾸준히 회복됨에 따라 이 같은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 1분기 시멘트 판매, 전년동기대비 15% 증가

베트남 건설부에 따르면 베트남 시멘트업체들의 2013년 1분기 판매량이 7.55Mt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판매량이 2Mt으로 3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베트남 건설부에 따르면, 1~3월 중 시멘트 판매 증가의 여파로 시멘트 재고가 전년대비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건설부는 베트남의 시멘트 판매량이 2013년에는 5~8% 정도 증가하여 2011년 수준인 48~49Mt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필리핀

#### 라파즈사, 필리핀 생산 확대

Lafarge Republic사가 증가하는 내수 판매량에 발맞춰 필리핀 세부 다나오(Danao)의 생산설비를 재개동해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라파즈 관계자는 “재개장하는 다나오 생산공장은 필리핀 주요 건설회사들의 건축 자재 수요 증가와 예정되어 있는 건설 프로젝트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개장으로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에 1Mta의 시멘트를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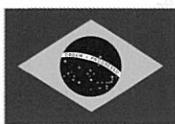
카자흐스탄

#### Steppe Cement사, 1분기 판매 감소

Steppe Cement사의 2013년 1분기 판매량이 전년대비 2% 감소한 16만6,121톤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익은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이 같은 판매 감소는 지난 해 겨울 카자흐스탄의 기상악화로 2013년 4분기 생산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13년 1분기 시멘트 가격을 높은 상태로 유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1분기 카자흐스탄의 시멘트 소비는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나, Steppe 사의 2013년 1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의 18%에서 3%p 감소한 15%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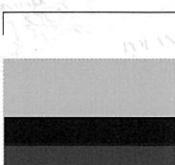
한편 Steppe Cement는 2013년 카자흐스탄의 시멘트 수요가 2012년보다 10% 증가한 약 7.7Mt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201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제5 생산라인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

### 2월 브라질 시멘트 판매 2.2% 증가

브라질 시멘트 산업조합(Sindicato Nacional da Industria do Cimento)에 따르면 2013년 2월 브라질 시멘트 판매량이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한 5.1Mt으로 나타났으며, 1~2월 판매량도 전년대비 1.8% 증가한 10.6Mt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브라질의 지난 2012년도 내수 판매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68.3Mta를 기록한 바 있다.



콜롬비아

### 콜롬비아 2월 시멘트 소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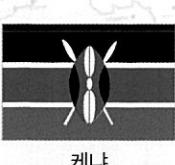
콜롬비아 국립 통계청(DANE)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2월 시멘트 소비가 전년대비 2.7% 감소한 82만3,700톤으로 나타났다. 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은 소매 판매가 5.7%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건축 회사 및 외주 업체 판매는 3% 증가했다. 이에 콜롬비아의 시멘트 생산량은 2월 82만3,7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 2012년 시멘트 판매 전년대비 2.9% 증가

Cement and Concrete Institute(C&C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12년도 시멘트 판매량은 2011년의 11.23Mt에서 2.9% 증가한 11.6Mt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4분기 판매량은 3Mt으로, 전년동기의 2.944Mt보다 2.9% 증가했다.



케냐

### ARM사, 2012년 순이익 8% 증가

케냐의 주요 시멘트업체인 ARM사의 2012년 순이익이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국가인 탄자니아에서의 판매 증가 때문으로 향후 수익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ARM은 2012년 시멘트 판매는 케냐와 르완다 및 탄자니아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64% 증가하였으며, 총매출도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1~2월 시멘트 판매량도 전년동기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ARM 관계자는 “탄자니아에서의 새로운 증산 능력 확보로 한층 강해진 성장력을 통해 이익을 더욱 높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 Bamburi사, 세전 소득 전년대비 15% 감소

Bamburi Cement사의 2012년 세전 소득이 전년대비 15% 감소한 717억케냐실링에 머물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Lafarge 그룹의 자회사이기도 한 Bamburi Cement는 2012년도 총매출이 4% 증가한 370억케냐실링에 달했지만 비용 또한 높아져 영업이익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amburi Cement 관계자는 “선거의 영향으로 초반의 실적은 부진했지만, 아프리카의 안정된 정치 상황 및 수출 시장 확대에 힘입어, 잠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WAPCO사 2012년 세전이익 전년대비 2배 증가

라파즈(Lafarge)사의 나이지리아 지사인 WAPCO의 2012년 세전 이익이 약 1억3,426만 달러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총매출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라파즈사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회사인 Lafarge WAPCO는 나이지리아 남서부의 오군주(Ogun state) 에웨코로(Ewekoro)에 4.5Mta급 시멘트 생산공장 3곳을 가동하고 있다. ▲

〈출처 :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13년 4·5월호〉

나이지리아

